

정신분석학을 이용한 루이스 칸과 렘 쿨하스의 건축 내부공간 구성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ner Space Composition of a Building between Louis I. Kahn and Rem Koolhaas through Psychoanalysis

Author 차명열 Cha, Myung-Yeol / 정회원, 배재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최효식 Choi, Hyo-Sik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삼성 소장, 건축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Louis I. Kahn and Rem Koolhaas, both of whom established their architectural theories and granted rationality to them by applying the theory of psychoanalysis, and examine common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inner space composition of a building between them. The study also set out to confirm a basic premise based on which to develop a metaphysical design concept by applying the theory of psychoanalysis in the inner space composi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future from the more developed and integrated perspective of modern psychoanalysis. As a result, Kahn sought after a metaphysical design concept through the combinations of inner unit spaces including servant and served space, which are comparable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from the perspective of psychoanalysis. Unlike him, Koolhaas applied the concept of folding to his architectural plans based on the theory of post-structuralism and created a metaphysical design concept by more focusing on connections between unit spaces rather than their combinations. While Kahn worked on his designs with much interest in the combinations of inner unit spaces in horizontal circulation by separating it from vertical circulation, Koolhaas created a new design concept beyond the limitations of Kahn, who had a confronting, dichotomous view of the world between the phenomenal world and the metaphysical world, by making use of inclined slabs to connect upper slabs with lower ones.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can be various metaphysical design concepts depending on how to connect and combine two confronting concepts when applying the theory of psychoanalysis to architectural design.

Keywords 루이스 칸, 렘 쿨하스, 정신분석학,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 주름, 경사 슬라브
Louis I. Kahn, Rem Koolhaas, Psychoanalysis, Metaphysical Design Concept, Folding, Inclined slab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건축에 있어서 정신분석학 이론이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렘 쿨하스(Rem Koolhaas, 1944~)와 OMA, MVRDV와 같은 현대 네덜란드 건축가들은 정신분석학의 시초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Freud)의 이론에서 발전된 라캉과 데리다, 그리고 들뢰즈의 사상 등을 적용하여 구축한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를 통해 동시대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건축에 정신분석학 이론을 도입한 최초의 건축가들 중에는 모더니즘 건축의 완성과 새로운 출발을 보여준 루이스 칸(Louis I. Kahn, 1901~1974)이 있다. 그는 프로이트와 함께 초기 정신분석학을 이끌었던 칼 쿨스타브 융(C.G.Jung)의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을 자신의 건축철학에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석학이론을 적용하여, 자신의 건축이론을 구축하고 합리성을 부여했던 칸과 쿨하스를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건축 내부공간의 구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별성을 확인한다. 동시에 이를 근거로 보다 발전되고 통합적인 현대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향후 현대건축의 내부공간 구성에 있어서 정신분석학 이론이 적용된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를 구축할 수 있는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fei4773@hotmail.com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1-0003174)

기본적인 전제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1.2. 연구 방법 및 절차

칸은 초기에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의 영향을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모더니즘 건축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칸은 융의 분석심리학과 카발라(Kabbalah)¹⁾에 영향을 받아²⁾, 'Served Space & Servant Space'와 '연결의 건축(Architecture of connection)', 그리고 '침묵과 빛(Silence & Light)'의 개념을 구축하게 되면서 건축이론을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본 연구가 있다.

반면 쿨하스는 기존의 건축이론을 근간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출발한 라깡과 테리다, 그리고 들뢰즈의 포스트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이론을 적용한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를 다양한 형태와 내부공간 구성으로 실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OMA와 MVRDV등의 현대 네덜란드 건축가에 의해 그의 이론들은 재해석 되고, 재창조 되고 있다.

칸과 쿨하스는 이처럼 건축이론과 정신분석학 이론을 융합을 했다는 공통점 이외에도 그들의 건축 디자인 발전과정 초기에 있어서 네덜란드 구조주의 작가인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에 대한 영향들이 엿보인다.³⁾ 그러나 칸과 쿨하스는 건축 디자인과 내부공간 구성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측면과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에 있어서 공통점보다는 차별성이 더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칸과 쿨하스의 건축작품과 그에 적용된 정신분석학이론들을 현대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유추된 특성들을 기반으로 현대건축의 내부 단위공간 구성과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 구축에 있어서 정신분석학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 번째로는 건축에 적용된 여러 정신분석학 이론들을 현대적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비교하여 그 차별점과 공통점을 유추하고, 두 번째로는 1960년대 이후 칸이 활용한 분석심리학이 그의 건축작품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내부 단위공간 구성의 특성

을 추출한다. 세 번째로는 쿨하스 건축들의 내부공간 구성에서 영향을 미친 정신분석학 이론들의 분석을 통해서 그 특성들을 유추하고, 마지막으로 칸과 쿨하스의 건축 작품들에서 나타난 정신분석학적 영향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향후 정신분석학 이론을 통해 새로운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를 구축하려는 건축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건축과 정신분석학의 관계

2.1. 지형학적 모델과 카발라

초기 정신분석학 이론 성립시기에는 프로이트 이외에, 융과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의 협력이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Conscious)과 전의식(Preconscious), 무의식(Unconscious)으로 나누고, 이를 영역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이 최초 인간 마음의 모형인 지형학적 모델(Topographic Model)이다.⁴⁾ 그러나,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과 행위가 무의식 저변에 숨겨져 있는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성적욕망, 즉 리비도(Libido)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욕동이론을 정립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지형학적 모델에 벗어나, 의식의 주체인 자아(Ego)와 무의식을 구성하는 원본능(Id)와 초자아(Super Ego)간의 구조적 결합이 기반이 된 구조적 모델(Constructivist Model)을 구축한다.⁵⁾

융과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욕동이론에 반대하여, 그의 길을 떠나 이후 각자의 정신분석학과를 이끌었다. 그 중, 융은 지형학적 모델을 더 발전시켜 인간정신을 의식과 함께, 개인적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과 집단적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을 포함하고 있는 무의식으로 영역을 나누어, 지형학적 모델의 전의식과 무의식과 대비시켰다. 그리고 의식에서 사회적 관계의 주체인 페르소나(Persona)와 의식 자체의 주체인 자아(Ego), 무의식에서는 자아의 반영인 그림자(Shadow)와 개인적 무의식의 주체인 아니마와 아니무스(Anima & Animus),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인간 정신 전체의 핵심이자 주체인 자기원형(Self-Archetype)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퍼스널리티 이론(Personality theory)을 구축하였다.⁶⁾

칸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인간 정신에 대한 부정적 경향을 담고 있다는 거부감으로 인해, 융의 퍼스널리티 이론을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건축이론에 적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 그러나 구조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프로이트

1) 헤브라이어로 '전승(傳承)'을 뜻하는 카발라는 중세 유대교의 신비주의 분파로서 전통 유대교와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참조: Charles Ponce, 카발라, 조하선 역, 물병자리, 2000.2, pp.10-12

2) A. Tyng, 루이스 칸의 건축철학(Louis I.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서유석·이강주 역, 태림문화사, 1993.12, pp.34-36 / Vincent Scully, Modern Architecture and Other Essay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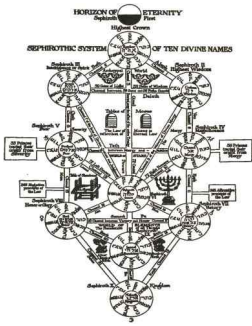
3) 실현되지 못한 칸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Jewish community center 1956)와 워싱턴 대학 도서관(Washington Univ. library, 1956)계획안에서는 알도 반 아이크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알도 반 아이크와 같은 네덜란드 구조주의 작가들은 기하학적 반복이 공간에 확장가능성과 융통성을 주기 위한 것인 데에 비해, 칸은 그와 함께 Room으로서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데에 주요 착안점을 두고 있다.

참조: 최영아, Louis I. Kahn의 건축에서 나타난 형태반복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pp.40-53

4) Stephen A. Mitchell & Margaret J. Black, 프로이트 이후-현대정신분석학(Freud and Beyond-A History of Modern Psychoanalytic Thought), 이재훈·이해리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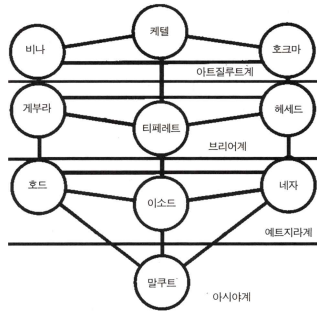
5) R.Greenberg & Stephen A. Mitchell,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pp.128-139

6) 이부영,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1999.5, pp.58-125



<그림 1> 세피로트 나무

(출처: Charles Ponce, 조하선 역, 앞의 책, p.96, p.69)



<그림 2> 4계에 걸친 10 세피로트의 배분

의 이론과 달리, 지형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 용의 퍼스널리티 이론은 각 정신영역의 주체들이 형성하는 정신의 영역성과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건축의 내부 단위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위계성과 상징성을 갖춘 평면 형식을 갖추는 데에 있어서 퍼스널리티 이론은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 단위 공간의 연계와 동선관계에 있어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칸은 분석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카발라의 대표상징인 세피로트 나무(Tree of Sefiroth)을 재해석하여 기존의 'Served Space & Servant Space'의 개념을 발전시켜 '연결의 건축'이라는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를 구축하여,⁸⁾ 내부 단위공간으로의 조합뿐만 아니라 단위공간 간의 연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과 2>의 세피로트 나무를 보면, 10개의 세피로트들이 아트질루트(Atsiuth), 브리어(Briah), 에트지라(Yetirah), 아시아(Aiyah)의 4계(界)로 나뉘진 영역 안에 각각 세 개의 트리아드(Triad)⁹⁾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정신의 주체를 통해 인간 마음의 영역을 구체화한 용의 퍼스널리티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칸은 세피로트와 퍼스널리티 이론의 유사정보다는 그 차별성에 더 주목을 했다.

첫 번째 세피로트인 케텔(Kether)에서부터 마지막 세피로트인 말구트(Malkuth)에 이르는 과정은 아인 소프(Ayin-Sof)¹⁰⁾에서부터 인간계, 즉 물질계의 주체인 아니(Ani, 我, 또는 존재)로 연계되는 데, 이러한 연결이 바로

세계, 즉 우주를 구조화한 세피로트 나무가 표방한 카발라의 주요 개념이다. 칸은 이러한 카발라의 교의를 통해서, 건축에 적용 시 평면의 내부 단위공간 배치에는 적합하지만, 각 단위공간의 연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진 용의 퍼스널리티 이론을 보완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인접한 세피로트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가면서 전체적인 구도와 상징성을 구축했던 세피로트 나무의 개념을 활용하여, 대칭적이면서 위계성을 가지고 있는 평면구성에 있어서도, 각각 단위공간들이 기능적인 관점에서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로 나뉘어 각자가 짝을 이루면서 서로 연결하여 다양한 내부동선의 연계를 추구하려는 칸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2.2. 구조적 모델과 노매디즘

칸 이후 정신분석학 이론을 수용한 대표적인 건축사상으로는 쿨하스가 포함되어 있는 해체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해체주의는 용의 분석심리학이 아니라, 프로이트의 구조적 모델의 영향이 지배적인 포스트 프로이트 학파(Post Freudian)¹¹⁾의 자끄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영향과 해체주의 철학자인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라캉과 데리다는 소쉬르의 언어구조학적 개념인 무의식의 상징하는 개념인 기표(Signifiant)와 의식에 속해져 있는 기의(Signifié)가 우연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리다는 그 결합이 불안한 것이고 인간정신은 우연의 결과라고 주장을 했고, 라캉은 기표와 기의의 불완전한 결합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그 사이에 '정박점(Point de Caption)'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박점과 기표와 기의가 합쳐져 마치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등과 합쳐져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언술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처럼 '중추적 시니피양(Key Signifiant)'이 구축되어 인간 정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데리다의 이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들은 런던의 AA School과 미국의 쿠퍼 유니온(Cooper Union)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축가 집단들이었다. 이들은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적 개념들과 기존 건축의 미적 기준들을 부정하고 모더니즘 건축에 영향을 준 구성주의와 데 스틸, 미래주의 등과 같은 미완의 계획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정형적 추상의 원리를 발굴하여 재구성했다.¹²⁾

해체주의에 대한 건축가들의 관심은 G.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와 P.F. 가타리(Guattari, 1930~1992)가 속해 있는 포스트 구조주의(Post-Structualism)로 옮겨

7) A. Tyng, 앞의 책, 서유석 · 이강주 역, p.34
 8) 최효식, 정신분석학에 의한 루이스 칸의 건축철학과 카발라와의 비교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8권 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9.4, pp.103-104
 9) 셋이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뜻함. 인용: Charles Ponce, 앞의 책, 조하선 역, p.116
 10) 아인 소프는 성경의 창조주 하느님을 넘어서는 무한한 미지의 신으로서, 그에게서 파생된 아인 소프의 방출된 속성인 세피로트로 인해 우주가 형성 되고, 이 세피로트는 바로 유한한 우주와 무한한 신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참조: Charles Ponce, 앞의 책, 조하선 역, pp.10-12

11) Stephen A. Mitchell & Margaret J. Black, 앞의 책, 이재훈 · 이해리 역, pp.17-70
 12) 최은희, 해체주의 건축의 시공간개념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램 쿨하스와 쿵 험멜브라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pp.40-41

겨간다. 이 중 램 쿨하스는 그들의 이론 중에서 노매디즘(Nomadism)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

노매디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는 ‘주름(folding)’을 들 수 있다. 주름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 1646-1716)는 정신분석학의 근간인 인간 무의식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기도 했다, 라이프니츠는 세계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점이 아니라 주름이라 보았고, 이것은 당시 점을 최소 단위로 보았던 데카르트의 기계론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과 대치되었다. 이 개념을 이어 받은 들뢰즈는 이것을 각각 ‘물질의 주름’과 ‘영혼안의 주름’이라고 명명하였다.¹³⁾

물질의 주름은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나타나는 주름도 포함하는 감각적이고 신체적인 주름이다. 이 모든 주름은 접히는 부분과 펼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펼침은 접힘의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접힘에 이를 때까지 접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접힘과 펼침이 계속 반복되어 이어지는 주름은 시간개념과 변형이 포함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질이 주름에서 영혼안의 주름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들뢰즈는 라이프니츠의 수학을 활용하였는데, 여기서 변화하는 곡률을 대표하는 점, 즉 변곡의 초점을 ‘시선의 점’이라 부르면서, 주체가 관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주체를 결정한다는 관점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는 대상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체의 상태도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영혼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인데, 곡률 또는 변곡의 무한한 계열 속에서 초점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주름진 온 세계는 한 시선의 점 하(下)의 영혼 안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영혼안의 주름에 대한 주장이었다.¹⁴⁾

주름의 개념은 새롭게 건축 설계에 도입된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되어, 과거 해체주의 건축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비정형의 매스와 내부 공간을 구체화 되었다. 이에 처음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을 정립했던 많은 건축가들이 디지털건축의 선구자로 그 활동영역을 넓혔다. 쿨하스도 주름의 개념을 조형적인 개념을 활용한 천장과 벽, 바닥을 하나로 연결한 위트레이트 대학의 에듀케리움(Educorium)¹⁵⁾이 있지만, 포스트 구조주의의 적용 초기부터 다른 해체주의 건축가들과 다른 접근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2.3. 현대정신분석학의 관점

정신분석학 이론을 건축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비

13) Gilles Deleuze, 'The Pleats of Matter', Fofing in Architecture, Greg Lynn(ed.), Wiley-Academy, 2004, p.33

14) 박하나, 들뢰즈의 주름론으로 본 해체주의 건축, 현대미술사연구 25권 1호, 현대미술사학회, 2009, pp.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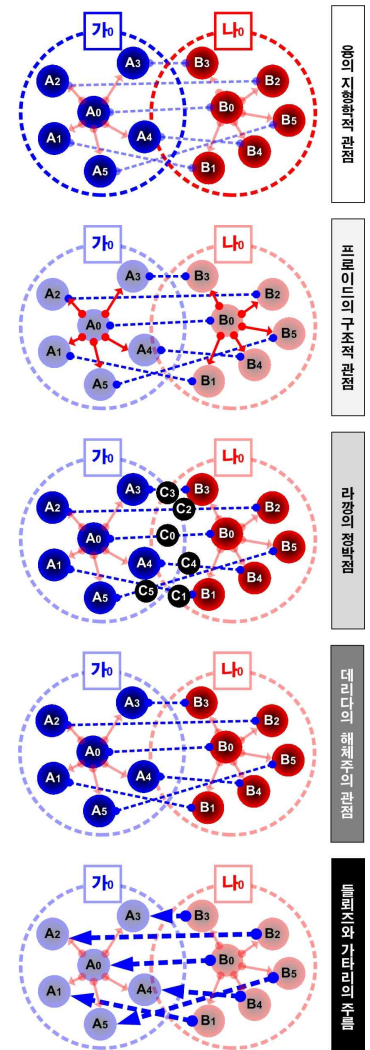
15) Charles Jencks, The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Yale Univ. Press, 2002, pp.185-188

록 각각의 이론들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이상학적 콘셉트들이 구축되었지만, 이들은 가장 중요한 정신분석학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바로 플라톤이 현상과 이데아(idea)를 나누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적 영역이라는 이항대립적인 두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영역의 주체들이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러 정신분석학 이론들의 차별성은 의식과 무의식이 속해 있는 주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지에 대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현대 정신분석학은 그 동안 각 파별로 전개되었던 여러 이론들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이다.

앞서 칸은 지형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융의 퍼스널리티 이론이 각 정신영역의 주체들이 형성하는 정신의 영역성과 그 특성에 초점에 맞춰져 있기에 카발라를 더해 이를 보완했다고 추정하였는데, 사실 각 정신영역의 주체들 간에 연계성에 대한 융의 이론으로 자기실현이론(Self-Realization)이 있다. 칸은 자아가 그림자와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원형을 단계적으로 의식화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자기실현이론까지는 이해하지 못했기에, 카발라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포스트 구조주의의 노매디즘의 근간이 된 구조적 모델도 각 정신영역 주체간의 연계성을 중시하였지만, 그 주체들이 형성한 영역성에 대한 접근이 엇보인다. 이는 초자아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초기 지형학적 모델을 버리면서 욕동이론과 경제학적 모델 등의 이론들을 만들었지만, 말년에는 초기 지형학적 모델의 전의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림 3> 각 정신분석학 이론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관점 비교

담고 있는 초자아를 구조적 모델 이론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구조적 모델을 제2의 지형학적 모델로 보는 이들도 있다.¹⁶⁾

<그림 3>은 칸과 쿨하스가 영향 받은 것으로 전체한 정신분석학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본 것이다. 우선 정신분석학 초기이론 중에서 가장 대립하고 있던 융과 프로이트의 지형학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을 비교해 보면, 의식의 영역인 가₀와 무의식의 영역인 나₀에서 그 정신영역을 특성화하는 A들과 B들의 각각 요소들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펼쳐간 반면,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연계 되어서 구조화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가₀와 나₀에 속하는 요소들이 그 영역을 넘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구축되는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즉, 프로이트와 융은 인간의 정신구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뿐, 그들이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것이었다.

쿨하스에게 영향을 준 정신분석학 이론도 두 가지 정신영역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캉과 데리다는 의식의 영역인 가₀의 기의인 A₀·A₁·A₂·A₃·A₄·A₅와 무의식의 영역인 나₀의 기표인 B₀·B₁·B₂·B₃·B₄·B₅간의 반복되는 결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둘의 차별성은 기의와 기표간의 결합에 있어서, 정박점인 C₀·C₁·C₂·C₃·C₄·C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인 가, 아니면 이도 없이 끊임없는 불완전한 결합으로 인간 정신이 형성된다는 관점의 차이이다. 그러나 의식과 무의식이 이항대립적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고, 그 주체들이 소통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이는 데리다의 영향을 받은 기표가 기의의 아래로 미끄러지는 결합 행위를 표방했던 들뢰즈의 이론에서도 역시 유효한 전체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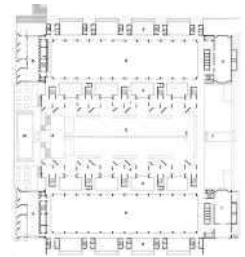
정신분석학 이론을 자신의 형이상학적인 디자인 콘셉트에 활용한 칸과 쿨하스 건축의 내부 공간 구성과 연계에 있어서, 분명히 각자 적용했던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특성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부 단위공간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또 융합시키거나 중첩시키는 방법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각 내부 단위공간을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처럼 두 가지 이항대립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영역의 주체들이 소통된다는 형이상학적인 전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칸의 건축이론과 분석심리학 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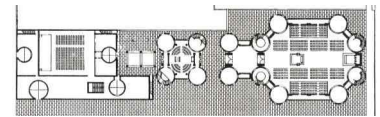
3.1. 퍼스널리티 이론과 대칭적 그리드 평면

1960년대 이전 칸은 초기에는 보자르적 대칭평면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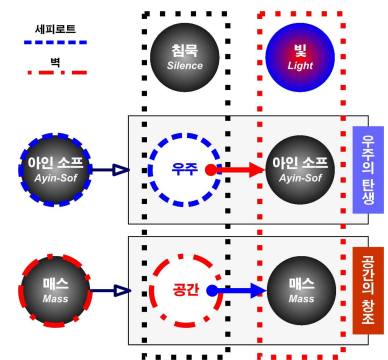
의 작품에 적용한 예가 있지만, 그가 모더니즘 건축가로서 명성을 얻은 이후, 예일대학 미술관(Yale Univ. Art Gallery), 제 1 유니테리언 교회(Firts Unitarian Church)와 리차드 의학 연구동(Richard Medical Research B.D) 등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인 자유로운 평면을 주로 사용하



<그림 4> 솔크 연구소 평면



<그림 5> 마이크베 유대교 회당 평면



<그림 6> 아인 소프와 침묵과 빛, 그리고 건축공간간의 비교 (출처: 최효식, 앞의 논문, p.97)

였다.¹⁷⁾ 그러나 융의 퍼스널리티 이론을 자신의 건축철학에 도입한 이후, 그는 다시 대칭적인 보자르적 평면을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새로운 출발로 리처드 의학 연구동에서 처음 도입한 'Served Space & Servant Space'의 개념을 한층 발전시킨 <그림 4>의 솔크 연구소(Salk Institute)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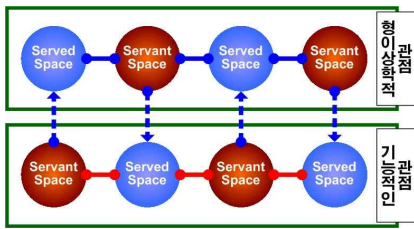
퍼스널리티 이론과 함께 카발라의 교의를 적용한 칸의 최초의 사례로는 추정되는 작품으로 <그림 5>의 마이크베 유대교 회당이 있다. 칸은 기둥을 영감(Inspiration)이라 부르면서 매우 주요한 공간 매스로 생각했었는데¹⁸⁾, 마이크베 유대교 회당을 보면 10개의 세피로트에 상응하는 10개의 속이 빈 거대한 기둥을 배치하면서 도학적으로도 대칭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세피로트 나무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둥, 혹은 건축물로 비견될 수 있는 매스가 비워짐으로써 공간이 형성되는 공간 창조 과정을 아인 소프가 모나드로 수축되어 나가면서 그 자리에 우주가 탄생하는 카발라와 교의와 연계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그림 6>으로서, 무한한 미지의 창주인 아인 소프에 의해 우주가 탄생되는 과정으로 건축 공간의 형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워져 있는 공간을 '침묵(silence)', 그리고 수축되어 나가는 매스를 '빛(light)'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용어로 대신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¹⁹⁾ 그리고 이 침묵과 빛의 개념은

17) 최영아, 앞의 박사논문, pp.22-29

18) Kent Larson, Louis I. Kahn, Unbuilt Masterworks, The Monacelli Press, 2000, p.93

16) 박찬부, 현대정신분석비평, 민음사, 1996, p.25



<그림 7> 'Served Space & Servant Space'의 형이상학적 관점과 기능적인 관점

식을 포함한 포괄적인 무의식의 주체로서 자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자(Shadow)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내부 단위공간의 배치를 대칭적이고 그리드 평면을 사용하면서도 각각의 단위공간의 연계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적용했던 칸의 'Served Space & Servant Space'의 개념들이 솔크 연구소와 미크베 유대교 회당을 거치면서 형이상학적 콘셉트인 '침묵과 빛'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원래 'Served Space & Servant Space'은 초기에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주공간을 Served Space로, 그리고 이 Served Space를 보좌하는 동선과 설비가 집약되어 있는 공간을 Servant Space로 하여, 음과 양의 대립항처럼 한 쌍으로 결합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후 퍼스널리티 이론과 세피로트를 적용된 'Served Space & Servant Space'의 개념을 도식화한 <그림 7>을 보면, 내부 단위공간들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로 분류하면서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부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Servant Space를 주공간인 Served Space보다 더 집중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면서 각 단위의 내부공간이 형이상학적 관점과 기능적인 관점을 결합하고 연계되면서, 칸의 건축철학은 이론적으로 한층 더 발전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칸은 자신의 방식으로 대칭적이고 그리드 평면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단위공간의 연계와 동선구성에 있어서 불리함을 가지고 있었던 퍼스널리티 이론을 세피로트 나무의 개념을 더하여 발전시킨 '침묵과 빛'의 개념으로 용이 퍼스널리티 이론의 보완으로 발전시킨 자기실현이론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2. 중의적 공간구성에 의한 수평·수직동선분리

칸의 '침묵과 빛'의 개념은 동양의 음양사상과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침묵과 빛' 칸이 용의 퍼스널리티 이론과 카발라를 결합시켜서 도출한 개념이라는 전체 하에서는 대립적이면서도 음양이 합쳐져 태극을 형성하는 것과 칸의 '침묵과 빛'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10개의 세피로트가 연계되어 3개의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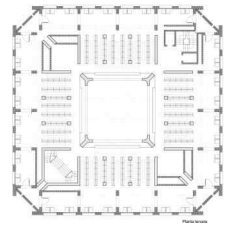
용의 분석심리학에서 의식의 주체인 자아(Ego)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거울로 삼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

리아드를 이루면서도 4개의 영역을 구성하는 카발라와, 각 정신의 영역의 주체가 의식과 무의식을 영역을 규정된 퍼스널리티 이론은 음과 양처럼 대립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의 요소로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세피로트와 용의 자기실현 이론은 각각 인접한 요소간의 연계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념적 배경이 충실하게 적용된 칸의 작품으로 필립스 엑시터 대학 도서관(Phillips Exeter Academy library)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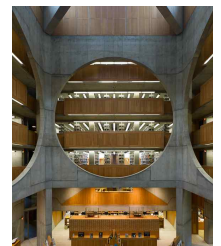
<그림 8>의 평면을 보면, 칸은 기능상으로 중시되는 평면의 중심 부분에 코어를 배치하는 대신, 그 위치에 중정을 두면서, 미크베 유대교 회당에서 거대한 기둥의 내부를 비워 두면서 카발라의 아인 소프가 우주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전체 내부 공간에 모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필립스 엑시터 대학 도서관은 솔크 연구소와 미크베 유대교 회당 등 보다, 한층 더 보자르의 대칭적인 내부 단위공간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도 필립스 엑시터 대학 도서관이 단순한 대칭적 그리드 평면에 머물지 않은 것은, 중앙에 코어를 집중하는 대신 주변에 나누어 배치된 코어들과 각 단위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의 대립항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연계함으로써 내부에서 동선과 시각을 통해서 선택적인 동선의 내러티브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공간배치가 가능했던 것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를 규정하였지만, 같은 내부 단위공간을 형이상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와는 반대로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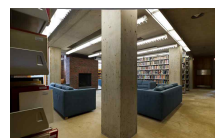
이는 <그림 9, 10>을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데, 칸은 Served Space가 되는 도서관 내부보다 Servant Space가 되는 중정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 집중을 하여, <그림 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이 중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에,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는 서로가 뒤바뀔 수 있는 내부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추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중의적 공간구성은 일견 단순해 보이는 대칭적 그리드 평면을 가지고서도 형이상학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함축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내부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8> 필립스 엑시터 대학 도서관 평면



<그림 9> 필립스 엑시터 대학 도서관 중정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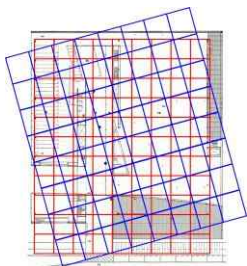
<그림 10> 필립스 엑시터 대학 도서관 내부 전경

19) 최효식, 앞의 논문, pp.96-97

이처럼 중의적 공간 구성을 통해 칸은 수직동선을 포함하고 있는 코어와 수평동선이 대치되는 모더니즘적인 단위공간조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공간구성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칸은 지형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 용의 퍼스널리티 이론에 영향 하에 의식과 무의식을 분리하여 각자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을 분리함으로써 내부 단위공간의 수평적인 조합에 많은 관심을 두고 디자인을 진행하여 각각의 단위공간에 중의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현대건축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 쿨하스의 건축과 노매디즘 영향분석

4.1. 주름과 그리드 평면 중첩



<그림 11> 2개 그리드 체계의 중첩된 쿤스트할 평면구성



<그림 12> OMA, Mission Grand Axe의 파리 모형

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에 보다 집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이는 쿨하스의 초기 대표작 중에 하나인 쿤스트할(Kunsth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을 보면 쿨하스는 기능을 중요시하는 하나의 내부공간 그리드 체계와 상징성을 중요시하는 또 다른 내부공간 그리드를 사선으로 중첩시키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처럼 ‘물질의 주름’과 ‘영혼 안의 주름’과 같은 이항 대립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두 가지 존재를 중첩시킴으로써 대한 새로운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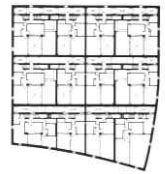
합에 대한 가능성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쿨하스의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는 그와 OMA가 같이 작업을 한 초기 서술 중에 하나인 『정신착란증의 뉴욕(Delirious New York-a Retroactive Manifesto for Manhattan)』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맨하탄의 도시 역사를 시대적이라는 일반적인 분류체계를 따르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의 단편적인 단어들에 나열하여, 그 시대성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는 이중구조로 책을 서술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쿨하스는 두 가지 내부공간 그리드 체계의 중첩을 확대시켜 도시적 공간 차원에 적용을 한다. 이것이 쿨하스와 OMA 작업한 <그림 12>의 파리의 Mission Grand Axe의 계획안이다. 이 계획안에서는 맨하탄의 그리드 패턴을 활용하면서도, 그 안에 모뉴먼트를 중요한 요소로 만들기 위해 일부를 소거하는 과정에 프랑스라 데팡스 그랑 알슈의 역사적 축선을 결합하면서 과거와 현대의 새로운 결합안으로 발전해 나갔다.²¹⁾

그리드 체계의 중첩에 대한 쿨하스의 탐구는 넥서스월드(Nexus world)로 이어진다. <그림 13>의 넥서스월드의 평면을 보면, 기존의 그리드식 아파트 평면에 비교적 충실하게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4와 1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파트 평면 위에 커튼월을 관통하는 내외부 공간을 연계하는 하나의 레이어를 더 중첩시키면서 새로운 조형성과 내부공간 구성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름이 가지고 있는 현상학적인 측면을 그대로 넥서스월드의 지붕구조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XY축으로 형성된 그리드체계에서 계획되는 2차원적 평면에 Z축을 추가하여 3D의 새로운 조형성을 창출하고 있다. 즉, 두 개의 다른 그리드 체계의 연계와 중첩을 XY축의 그리드와 YZ의 그리드 체계를 Y라는 축을 매개로 중첩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3> 넥서스월드 2층 평면



<그림 14> 넥서스월드 내부 모습



<그림 15> 넥서스월드 상부모습



<그림 16> 네덜란드 건축 연구소 단면

20) 문정필, 렘 쿨하스 건축의 이항대립에 관한 연구-롤랑 바르트 기호의 신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7권 10호, 2011.10, pp.141-142

21) Rem Koolhass, Anywhere-4. 공간의 논리, 현대건축사, 2001, pp. 206-207

쿨하스의 그리드 중첩은 이후, 평면에서 입면과 3차원적인 조형성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림 16>의 네덜란드 건축연구소(Institution Holand Architecture) 계획안과 중국 CCTV 본사(CCTV Headquarters)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2. 현상·형이상학계 결합과 수평·수직동선 결합



<그림 17> 쿤스트할의 경사 슬라브 부분의 외부 파사드



<그림 18> 파리 주시외대학 도서관 현상안



<그림 19> 시애틀 공공 도서관 내부전경

칸이 지형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한 용의 퍼스널리티 이론을 받아들였다면, 구조적 모델에서 발전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매디즘을 자신의 건축이론에 활용한 쿨하스는 비록 적용한 이론들은 다르지만, 두 건축가 모두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인간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의 이항대립적인 개념의 구성이라는 진제는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과 쿨하스는 현상학적인 디자인에서는 역시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이 우선 인지된다.

가장 큰 차별성 중에 하나가 경사 슬라브의 활용이다. <그림 17>은 쿤스트할의 외부 파사드로서 평면에서 두 개의 격자 그리드의 중첩과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입면에서도 두 개의 그리드 체계의 결합으로 경사 슬라브를 활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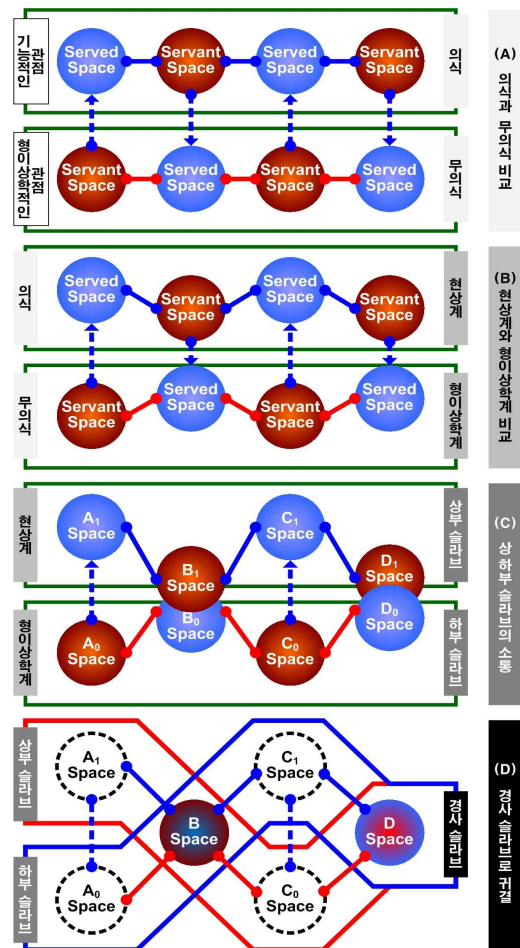
이는 프로이트가 현상계를 대표하는 의식과 형이상학계를 대표하는 무의식간의 연계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써, 라캉과 데리다가 추상했던 무의식의 기표가 의식의 기의가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구조화되는 개념을 이어 받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포스트 구조주의의 주름을 실제 내부 공간의 시각적 변화로 형상화시키고 싶었던 쿨하스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경사 슬라브를 통한 형이상학적 디자인 개념을 현실화하는 데에 있어서, <그림 18>의 파리 주시의 대학 도서관 현상안(Bibliothèques Jussiesu)은 쿨하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하다. 이 설계안은 기존의 그리드 체계 구조 안에서 평슬라브를 거부하고, 각 층의 공간들이 거대한 경사 슬라브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접힘과 펼침의 연속이라는 주름의 개념을 단순하게 형태적으로 재현한 것 이상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의 디자인 개념을 표방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경사 슬라브가 가지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경사 슬라브에서 이 내부 공간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찰자의 시선이 수평적인 그리드 체계로 간혀져 있다가, 수직적인 방향으로 옮겨가면서 시각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면서 내부 단위공간의 변화를 인지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즉, 현상적인 물질의 주름이 평면적인 그리드체계에서 수직적인 경사 슬라브가 침입하면서, 영혼안의 주름이라는 형이상학적 디자인 개념으로 진일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계로서 그리드 체계는 기능을 상징하면서, 접히는 의식계의 기의가 되는 것이고, 그와 결합되는 경사 슬라브는 형이상학계로서, 펼쳐지는 무의식계의 기표가 되어, 이 두 가지의 상호 연계로서 새로운 단위공간의 조합을 선보인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계획에 그쳤던 주시의 대학 도서관의 방법론을 한층 더 발전시켜 현실화시킨 쿨하스의 작품으로 시애틀 공립 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을 들 수 있다. <그림 19>의 시애틀 공립 도서관의 내부사진을 보면, 기능상의 문제로 주시의 대학처럼 열람실 자체에 경사 슬라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계단식으로 열람실 공간들을 적층하여 배치를 시키고 그 주변에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슬로프를 두었다.



<그림 20> 칸과 쿨하스의 형이상학적 디자인 개념 비교

쿨하스는 칸과 같이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합치될 수 있는 방법론에 더 집중한 것은, 그가 영향을 받은 포스트 구조주의 이론의 근간이 된 프로이트의 구조적 모델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나누기 보다는 의식과 무의식의 요소들이 서로 연계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그림 20의 (A)>에서 기능적인 관점을 의식으로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무의식으로 대치시켰을 때, <그림 20의 (B)>에서 각자의 영역에 있는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를 의식과 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고, 프로이트의 시각에서 보자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각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여기서 쿨하스와 칸의 건축방법론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칸은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 아래에 수직동선에 의해 각층의 구분이 명확하게 분리하는 내부 공간의 구성을 계속 추구하였기에, 각 단위공간의 배치와 공간조닝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상계와 형이상학계를 중의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상부와 하부 슬라브로 나누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대치되는 개념을 적용하여도, 두 공간을 소통시킬 수 있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인 방법론을 도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쿨하스는 건축 이론의 발전에 편승하여, 더 새로운 건축을 시도할 수 있는 시대적인 토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설계에 있어서도 컴퓨터의 도입으로 평면, 입면, 단면 등의 2차원적인 도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3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했다. 이에 <그림 20의 (C)>에서처럼 상부와 하부 슬라브의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내부 공간 구성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 <그림 20의 (D)>의 경사 슬

라브이다. 이 과정에서 상·하 슬라브로 나뉘었던 B₀와 B₁ space, 그리고 D₀와 D₁ space과 결합이 되면서, 의식과 무의식계의 불완전한 결합을 유지시키는 라캉의 중추적 시니피앙을 상징하는 B와 D space로 그 공간이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각 층을 구분하면서 이항대립적인 현상계와 형이상학계를 Servant Space와 Served Space로 나누어 중의적인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칸의 내부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간의 프로그램적인 측면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새로운 건축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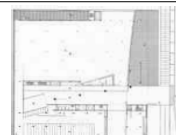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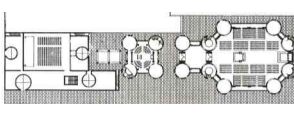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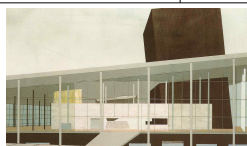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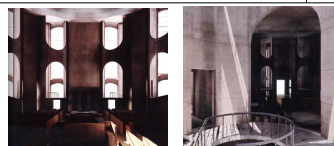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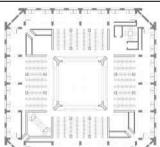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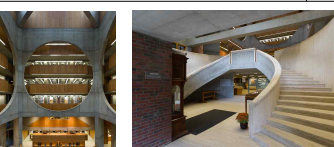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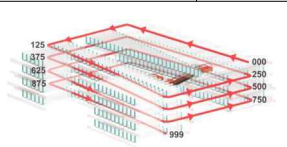
이에 대해 첫 번째로 내부 단위공간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B와 D space를 중심이 되어 다양한 내러티브 동선의 연계를 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의 (D)>의 B와 D space를 기점으로 A₀→B→C₁→D와 A₁→B→C₀→D, A₀→A₁→B→C₁→C₀→D와 A₁→A₀→B→C₀→C₁→D 등의 동선경로가 구축됨으로써, 내부 공간의 이동이 다양한 시각적인 관점에서 규정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내부 단위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역시 B와 D space를 중심으로 A₀, A₁, C₀, C₁가 동일한 공간일 때는 각 단위 공간을 회전시키고 대칭으로 구성이 되고, 내부 단위 공간의 크기를 다를 때는 스케일적인 변용까지 더해져서 다양한 내부 공간구성의 방법들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4.3. 칸과 쿨하스 건축의 정신분석학 영향비교

<표 1>은 통합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칸과 쿨하스의 공간을 비교해 본 것이다. 칸이 지형학적 모델에서 발전한 응의 퍼스널리티 이론을, 쿨하스는 구조적 모델에서 발전된 노매디즘에 영

<표 1> 현대 정신분석학 관점에 의한 칸과 쿨하스의 공간 비교

(상:●●●, 중:●●, 하:●)

의식·무의식 영역 구성		의식·무의식 주체요소의 소통	
지형학적 모델	구조적 모델	세피로트 나무·자기실현 이론	물질의 주름과 영혼의 주름
퍼스널리티 이론	노매디즘	중의적 공간구성	현상·형이상학적 결합
대칭적 그리드 평면	그리드 시스템 중첩	수평·수직동선 분리	수평·수직동선 결합
			
솔크 연구소 평면 ●	쿤스트할 평면 ●	솔크 연구소 코어 진경 ●●	쿤스트할 내부진경 ●
			
미크베 유대교 회당 평면 ●●	네덜란드 건축 연구소 ●●	미크베 유대교 회당 내부 재현 ●●●	쥬시외 도서관 단면 ●●●
			
필립스 엑시터 대학 도서관 ●●●	중국 CCTV 본사 ●●●	필립스 엑시터대학 도서관 중정과 계단 ●●●	시애틀 공립도서관 동선도 ●●

향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이 이론들 모두 인간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주체의 소통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 했다. 그러나, 의식과 무의식의 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의식과 무의식의 소통에 더 집중하는 지에 따라 정신분석학이론의 전개가 다르게 펼쳐진 것처럼, 칸과 쿨하스도 그리드 평면과 수평·수직 동선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현상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내부 공간 디자인에서 차별성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칸과 쿨하스가 그들의 작품에 적용한 것으로 전제한 정신분석학적 영향의 분석한 내용에도 각각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특성이 들어난다. <표 1>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상충하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해보았는데, 칸은 퍼스널리티 이론과 자기실현이론을 통해, 인간 정신에 대한 이해도를 전체적으로 높이려고 했던 용처럼, 대칭적 그리드 평면과 수평·수직동선의 분리를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의 건축작품 내부공간의 완결성을 추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쿨하스는 노매디즘에 영향을 준 라깡과 데리다의 전제인 기표와 기의의 불완전한 결합을 통한 우연성을 강조한 것처럼,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하나의 건축물의 내부 건축공간에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그 이론의 단면을 확대하여 각각의 건축물에 개별적으로 활용했기에 칸보다는 이론의 영향이 편향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루이스 칸과 램 쿨하스의 건축철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의 형성과정과 그 디자인 적용과정에 대해 비교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여러 정신분석학 이론들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항 대립적 요소들에 대한 전제들을 공유하면서도 의식과 무의식의 구성요소들의 조합과 연계에 있어서 각자의 이론을 전개한 것처럼, 건축에 정신분석학 이론을 도입할 시에 의식의 기의와 무의식의 기표처럼 수평과 수직동선, 혹은 기능과 상징적인 내부 단위공간들의 여러 조합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를 구축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칸이 정신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성에 관심을 둔 지형학적 모델에 영향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정신영역의 주체의 소통에 대해 단점을 가지고 있는 용의 퍼스널리티 이론에 카발라의 세피로트 나무의 개념을 더하여, 대칭적 그리드 평면에 의식과 무의식의 대치와 비견될 수 있는 Servant Space와 Served Space의 내부 단위공간의 조합을 통해 ‘침묵과 빛’과 같은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를 추구했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 램 쿨하스는 정신영역을 구축하는 주체들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조적 모델을 이어받은 포스트 구조주의 이론을 건축에 적용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에 표방할 수 있는 물질과 영혼안의 주름을 상징하고 있는 그리드 체계의 중첩을 통해 단위공간의 조합보다는 서로간의 연계에 더 집중한 형이상학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네 번째, 칸이 분석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수평과 수직동선을 분리하면서 수평동선의 내부 단위공간 구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완결성 있는 디자인을 진행함으로써 이항 대립적인 현상계와 형이상학계를 중의적 공간구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노매디즘의 영향을 받은 쿨하스는 상하부 슬라브를 연계하는 경사 슬라브를 활용함으로써 현상학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디자인 콘셉트를 구축할 수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칸과 쿨하스의 이론들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비록 적용방법에는 차이는 있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추정할 수 있었고, 차후에 정신분석학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형이상학적 디자인 콘셉트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A. Tyng, 루이스 칸의 건축철학(Louis I.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서유석·이강주 역, 태림문화사, 1993.12
2. Kent Larson, Louis I. Kahn, Unbuilt Masterworks, The Monacelli Press, 2000
3. Rem Koolhaas 외 2인, Elcroquis-OMA, REM KOOLHAAS II 1987-1998, El Croquis, 2000
4. Rem Koolhaas, Anywhere-4. 공간의 논리, 현대건축사, 2001
5. Stephen A. Mitchell & Margaret J. Black, 프로이트 이후-현대정신분석학, 이재훈·이혜리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6. 이부영,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1999.
7. R.Greenberg & Stephen A. Mitchell,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8. 박찬부, 현대정신분석비평, 민음사, 1996
9. 최영아, Louis I. Kahn의 건축에 나타난 형태반복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7.2
10. 최효식, 건축구성원리의 정신분석학 적용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8
11. 최효식, 정신분석학에 의한 루이스 칸의 건축철학과 카발라와의 비교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건축역사연구 제18권 2호, 2009.4
12. 박하나, 들뢰즈의 주름론으로 본 해체주의 건축, 현대미술사학회 현대미술사연구 25권 1호, 2009
13. 문정필, 램 쿨하스 건축의 이항대립에 관한 연구-롤랑 바르트 기호의 신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7권 10호, 2011.10
14. 장용순, 끌로드 빠향과 램 쿨하스의 경사판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6권 6호, 2010.6

[논문접수 : 2012. 08. 29]
 [1차 심사 : 2012. 09. 18]
 [2차 심사 : 2012. 09. 27]
 [게재확정 : 2012. 10. 12]